

CHAPTER 3. 수시 합격 결정짓는 마지막 하나

3) 대학이 뽑고 싶은 자기소개서 작성법

대학에서 평가 할 때 학생부를 보조할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은 자기소개서는 대학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에 대한 일차적인 인상을 만드는데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학생부만큼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3년에 걸쳐 만들어야하는 학생부와 달리, 자기소개서는 수험생에 따라 일주일만에도 우수한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대비 효용가치로 따지면 자기소개서가 학생부보다 더 신경써야 할 자료입니다



고3 수험생들은 대부분 3학년으로 진학하기 직전인 2월경,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이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부랴부랴 쓰다가는 수능 공부 패턴이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완성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3학년 수험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2월은 자기소개서 초안을 마련하기에 딱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기소개서 초안을 써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니 첫 줄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무작정 줄글로 옮기려고 하기보다 학생부를 찬찬히 훑어보며 내가 한 활동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간단한 재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형광펜'과 '포스트잇'이 그것이지요.

우선 학생부를 여러번 반복해 읽어보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자기 소개서에 소재거리가 될 만한 활동들을 모두 형광펜으로 칠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누락된 부분이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잡아낼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형광펜으로 활동들을 표시한 뒤에는 포스트잇에 △활동명 △활동내용 △느낀 점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자질 등을 간결하게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탐구토론대회에서 상을 탔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면 포스트잇에 '2학년 과학탐구토론대회 동상'이라고 적은 뒤 '발명에 대 한 새로운 생각' '물리에 대한 흥미' 등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는 것이지요. 그 옆에는 활동을 통해 얻은 자질을 키워드로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꼼꼼함' '협력' '창의성' 등을 적는 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장의 포스트잇을 책상 앞 벽면이나 노트에 한 눈 에 볼 수 있도록 붙여보세요. 그 다음 할 일은 포스트잇을 훑어보면서 자기소개서 각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뽑아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개서 공통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 △본인이 의 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 등 총 세 가지입니다. 이 문항에 따라 활동들이 적힌 포스트잇을 분류하다 보면 각 문항에 어떤 내용을 써야할지 대략적인 감 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뼈대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살을 붙일 차례입니다. 학생부에는 드러나지 못한 사소하고 개 인적인 경험 및 느낀 점을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수학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활동했다'고 학생부에 적혀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즉, '시중에 파는 교재 한 권을 정해 체계적으로 진도를 짰 뒤 손수 만든 시험지를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했 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수업일지를 기록해 무엇이 부족한지를 분석했다'는 식으로 적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초안이 완성됐다면 모든 문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더욱 짜임새 있는 자기 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가 꿈이 라면 모든 항목의 관통 키워드를 '진로'로 잡고 각 문항에서 '경제학자로서의 자질'을 끼워 넣을 수 있을 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1번 문항에서는 혼자 몰두해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면 2번 문 항에서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에서 어떤 경제학자의 자질을 배웠는지 설명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일성을 갖추면서 전공적합성까지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서 묻는 내용을 정확 히 파악하고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소재를 찾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학들은 한국대 학교육협의회 가 내놓은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에 따라 3개의 공통문항과 1개의 자율문항을 활용합니다. 항목별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강조해야 할까요? 우선 각 항 목부터 살펴봅시다.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및 대학별 문항

〈자기소개서 문항〉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4. 자율문항 : 대학별로 다름. 대다수의 대학들이 지원 동기, 지원한 모집단위를 위한 노력, 향후 학업계획 등에 관해 질문함.

<표1>과 같이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정한 공통문항 1~3번, 대학이 자체적으로 내는 4번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서를 제출하려면 위의 1~4번 문항을 모두 작성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보완해주는 서류로 학생부에 잘 드러나지 않은 학생만의 특성과 개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수상 실적, 동아리 활동 등을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활동이 왜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문항은 학생이 고교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대학 입학 후 얼마나 성장 가능한지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스스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 자신만의 공부법을 사례로 보여주면 좋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성적이 많이 오른 교과목으로 제한해 생각하는데, 굳이 교과목에 제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1번 문항에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묻는다고 해서 과거 경험에만 초점을 맞춰 작성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대학들은 단순히 지원자가 고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과거 경험을 통해 가능해 보려는 것입니다. 즉, 지원자가 학업역량을 드러낼 때도 자신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적극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을 올렸던 과정만 나열할 것이 아닙니다. 1번에서 묻는 학업이란 고교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대학의 희망전공, 진로와 관련된 공부 등을 폭넓게 의미하므로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에 쓰이는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활용해 자신의 학업역량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출판편집자를 꿈꾸는 학생이 교지편집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지의 교정·교열' 등을 보기 위해서는 국어

실력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 다면 이를 실천에 옮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학습 동기
→ 학습 과정→ 학습 성취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적인 학업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공통문항 2번은 학업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 성품, 책임감 등 학업적인 소양 외의 것들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동아리, 봉사, 학생회 활동, 교내 대회 등 학생이 겪어온 여러 가지 활동을 단순 나열하기보다,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문항 에서 학생들이 주로 자신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다채롭게 활용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할 점은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활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3번 문항은 학생이 어떻게 협력하고, 나누고, 배려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앞의 두 문항과는 달리 혼자만의 경험이 아닌, 대인관계와 관련된 학생의 인성을 알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은 사례 중 학생의 생각과 신념, 가치관이 드러나는 상황을 자세히 표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특이한 사례를 쓰려고 없는 내용을 허위로 쓰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소소한 이야기라도 그 이야기가 학생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례였다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문항에선 많은 수험생들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착각하지만 1000자 이내로 제한된 분량 안에서 이를 모두 드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협력·갈등관리 또는 배려·나눔과 같이 내용별로 연관성 있는 항목을 두가지씩 묶어 서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3번에서는 결국 지원자의 인성과 사회성 등을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조건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네 가지를 모두 다루는 데 집착하기보다 자신의 고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자신만의 사례를 솔직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3번 문항에서도 역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봉사활동 경험을 3번에 녹여내는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했거나 팀을 이뤄 협력한 경험, 교우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일 등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어 쓰면 좋습니다.

4번 자율문항은 대학별 문항으로, 1000자 혹은 1500자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별 자기소개서 자율문항은 성장과정, 독서활동, 역경을 극 복한 사례 등 다양한 것을 묻습니다. 실제로 서울 주요대학들은 자기소개서 4번을 활용해 각 대학에서 중요시하는 역량을 확인합니다. 서울대의 경우 자기소개서 4번 항목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고 요구하지요. 서울대 입학처는 웹진 '아로리'를 통해 "독서능력은 곧 학업능력을 뒷받침하므로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글의 주제 파악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독서 소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독서문항의 중요성을 밝힌바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자체가 '희망 대학의 학과 혹은 모집단위에 잘 맞는 이유'도 소개하는 서류인 만큼, 자신의 전공적합성과

지원동기를 잘 녹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소서 공통문항,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공통문항의 경우 각 문항에서 대표적으로 묻는 학습경험, 교내활동, 나눔·배려·협력의 경험 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우선 공통문항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문장입니다. 적잖은 학생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제시하라'는 문장에 집중해 내신 학습 방법을 줄줄이 작성합니다. 이 문항이 요구하는 바는 지원자가 특정 과목 시험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던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입학사정관들은 1번 문항을 통해 지원자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역량과 향후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들에게 내가 가진 학업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주려면 학습과정이나 동아리 활동 과정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지원자가 느낀 점,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원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효과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학자를 꿈꾸는 학생이 물리실험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면 단순히 물리 실험 과정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됩니다. 물리 실험을 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물리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과정, 그리고 이 느낀 점을 통해 다른 활동으로 확장시킨 과정을 구체적으로 녹여내면서 건축학도로서의 자질을 갖췄다는 점을 적극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생이 실시했던 교내 활동을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2번 문항 작성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 마땅히 쓸 만한 소재가 없다고 고민합니다. 명심하십시오. 2번 문항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활동을 기록하는 항목이 아니라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을 강조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 높은 성취결과를 보였던 동아리활동과 같은 거창한 소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런 소재가 아니어도 특정 활동 동에서 파생되고 확장되어서 실천해왔던 또 다른 활동 내역들을 서로 연관시켜보거나, 지원자의 진로와 관련성이 높은 활동 사례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적절한 사례를 선정해 작성을 하는 과정에선 지원자가 해당 활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활동을 통해 지원자가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 북'의 2번 문항 자소서 예시를 살펴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교사를 꿈꿔온 A 학생은 2학년 때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활용해 직접 모의 수업을 진행해보며 교사와 학생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A 학생은 처음에는 강의식 수업을 준비하였으나 친구들의 집중력이 떨어지자 수업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소나기의 등장인물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참여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모습을 본 A 학생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교사가 수업 도중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도전을 감행해야 하는지 절실히 느꼈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담아냈습니다.

모의수업을 진행해 본 경험은 교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경험입니다. 즉, 수상경력이나 특정 성과를 거둔 거창한 소재가 아니라 이런 작은 경험도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례 속 A 학생은 특히 이런 활동 과정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히 담아내고, 그 과정에서 느낀 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낸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합격을 거머쥔 수 있었습니다.

3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사례를 줄줄이 나열해선 곤란합니다.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독특한 경험이 없더라도 학업이 부진했던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경험,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친구와 갈등을 극복한 사례,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 등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 등을 솔직하게 작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학생들은 선배의 자기소개서, 합격생의 자기 소개서 등을 참고할 것입니다. 이럴 때 나도 모르게 같은 내용을 내 자기 소개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학은 수시 모집요강을 통해 공통적으로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한다"고 안내합니다. 유사도 검색을 통해 표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되는 것은 물론 입학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하길 바랍니다.